

기 조 강 연

<한반도 평화 및 통일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 재 희*

남국의 정취와 낭만이 넘치는 이곳 제주에서 금일 아태정책연구원과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문제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주제 토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정부의 발족과 함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한 관계 구축을 목표로 햇볕정책, 정경분리, 상호주의 등 다양한 대북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통일 소 1,000마리의 복숭에 이어, 드디어 금강산 관광선의 첫 번째 출항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북한에 의한 도발적인 인공위성 실험발사로 인하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한반도에는 여전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심포지움이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4강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다루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동서 냉전의 종결에 이어 독일이 통일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냉전이 극적으로 종결될 때, 본인은 런던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유럽의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 마치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의 국제정세를 방불케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열강들간의 새로운 세력 다툼의 가능성을 예측한 말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냉전후의 일반 국제정세의 전개와 그 흐름을 보면,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남게 되고, 다행스럽게도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이 모색되는 가운데 지역협력의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의 확대 강화 등으로 다자간 안보체제와 지역협력이 일층 발전됨으로써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좋은 환경과 새로운 지역 질서가 꾸준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구 유고사태 등 일부 지역 분쟁도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효과적으로 수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협력의 추세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태평양, 북미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 주일대사

냉전 종식후 걸프전쟁이나 기타 국지적인 분규와 무력분쟁 등 돌발 사태가 있었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뜻있는 국가들이 수시로 형성한 국제적 연립세력(coalition)에 의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대처되어 왔으며, 이는 최근의 새로운 국제적 동향으로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미국의 안보공약 존속에 힘입어, 표면상으로는 그런대로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듯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동시에, 다자간 안보장치와 지역협력 체제가 전혀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매우 불안정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현 상황은 격렬한 민족주의와 치열한 군비경쟁으로 열강들이 각축한 100년전의 유럽을 연상케 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는 구한말의 정세와 비슷하다는 견해 조차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안 요인으로서 가장 현저한 것은 한반도 문제와 대만문제, 그리고 한반도 주변 4개국 중 미·러·중 3개국은 핵 보유국인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러시아는 구 소련시대에 보유하던 핵 공격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도 군사 목적의 핵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국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장차 유엔 안보리 개편을 통하여 독일과 함께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4개국 관계는 지역정치 차원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 정치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세를 불안하게 만들며,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반미주의는 정세의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일반 국제정세의 흐름과는 아직도 먼 거리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는 동북아시아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남·북한관계와 주변 4개국의 한반도정책은 동북아시아 정세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때 우리는 독일보다는 한반도의 통일이 앞설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이 통일되자 한반도의 통일도 곧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의 정세를 보면 통일의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KEDO 방식에 의한 경수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핵 개발 의혹은 여전하며, 새로운 지하시설의 발견과 장거리 유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핵 의혹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4자회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및 평화체제 구축 전망은 불투명하며, 최근 마침내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되었지만 북한의 의도에는 변화가 없고 그 정책은 예측을 불허하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협력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한·미·일 협조체제와 북방외교의 성과를 토대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다자간 안보와 지역협력체제를 모색하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남·북한 관계와 주변 4개국의 정책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창의적이며 주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심포지움이 이러한 우리 노력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어서 뜻깊은 공헌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그 성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